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행하지 말라



新 불교사자성어

⑧ 제악막작(諸惡莫作)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제악막작(諸惡莫作)은 〈법구경〉 등에 나오는데,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의 첫 구이다. '악한 일은 일체 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악을 하지 말고 선을 하라'는 것은 지고한 가르침이다. 특히 선은 모든 종교, 철학에서 추구하는 진리인 동시에 사회질서를 이끌어 가는 윤리,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환경적 요인이든 자의적, 타의적이든 선(善)보다는 악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은 악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짜뉴스나 모함, 악의적인 댓글, 원색적인 비난도 오늘날에는 남을 괴롭히는 큰 악이다. 그 피해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또 선행도 좀 하면서 살아가면 보람 있는 삶이 되는데,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내가 왜 해?'라고 하면서 선(善)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악은 행동적, 언어적, 생각으로 짓는 3가지 악이 있다. 행동적인 악은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범죄 등이 있고, 언어적인 악은 모함, 비방, 폭언, 거짓말, 중상모략, 가짜뉴스 등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악은 증오심, 분노 등이 있는데, 분노, 증오심이 쌓이고 쌓이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 1위 국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사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범죄사건을 통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가운데 '사기 범죄 1등 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기에 관해서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인터넷을 통한 경제사기, 금융사기가 극심했고, 부동산사기도 많았다. 윤리의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牛) 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다. 작은 악도 반복하다 보면 도덕적 감각, 죄의식이 무너져서 악이 마음을 장악한다. 나중에는 제법 대범해져서 사회나 대중 등 서민들을 상대로 몇백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다. 사기는 악덕 경제 범죄로, 강도, 강간, 살인, 모함 등과 함께 5대 사회악의 하나이다. 부부 사기단 등 집단 사기단은 아마도 전생부터 맺은 깊고 깊은 인연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악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절대 하지 말라[諸惡莫作]고 말씀하셨다. '악화(惡貨)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토머스 그레셤의 말과 같이 악은 선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악이 앞서는 한 선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악은 잡초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란다. 수시로 뽑아내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 죽는다. 잡초는 곡식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 씨를 뿌리면 곡식보다 먼저 올라와서 밭을 장악한다. 귀찮다고 방치해 버리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농부는 매일 같이 밭에 나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의 악을 제거하고 선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악행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다. 때론 치명적이어서 한 인생이나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특히 사기, 강도, 강간, 살인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을 슬픔에 빠지게 한다.

욕망, 욕심이 많고 게다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의식이 없으면 악에 빠진다. 자신의 마음에서 악이 싹트려고 할 때 과감히 잘라 버려야 한다. 악을 자르는 무기는 선악에 대한 명석한 분별력, 지혜, 현명함, 가치관 등이다.

선과 악은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낳았다. 맹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하려는 마음씨, 즉 도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는데, 성선(性善)을 표방해야만 우리의 인성이 악을 버리고 선(善)으로 가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악이라는 것이다. 순자의 '청출어람'이라는 명구는 교육을 통하여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인성이 형성되는 사회적 조건에 주목했고 교육의 효과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두 뜻 알면 안목 뛰어나게 돼"



격절록 강설

⑧ 제2칙 설봉보청(雪峯普請 · 설봉의 대중울력) 2

[評唱 2]

只如 雪峯普請處 踏倒這僧. 歸舉似長生 長生是箇活潑潑地漢 便道 "和尚也須替這僧 入涅槃堂始得" 只這雪峯老漢 也好當時便休去 到這裏 作麼生湊泊也. 須是三根椽下五尺單前 靜坐究取始得.

설봉이 대중울력 하던 곳(普請處)에서 이 스님을 밟아버렸다. 그리고는 돌아와 장생(長生)에게 (앞의 일을) 전했는데, 장생은 활발발(活潑潑)한 사람이라서 곧장 말하기를 "화상께서야말로 모름지기 이 스님 대신 열반당에 들어가셔야 합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때) 다만 이 설봉 노장이 당시에 바로 쉰 것(休去)도 괜찮았지만,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겠는가? 모름지기 삼근연하 오척단전(三根椽下 五尺單前, 선상)에 고요히 앉아 참구해야 한다.

看雪竇老婆 拈似與諸人. 到這裏見得去 自然打著南邊動北邊 纔拈起 便眼卓朔地. 雪竇拈掇 他這因緣 人多邪解 別生知見義路 只管解將去 殊不知雪竇意元不如此. 且道 他意在什麼處. 也好與一踏. 且莫錯會.

설두가 노파심으로 (이 공안을) 염해서 모두에게 보여 준 것을 보라! 여기에 이르러 (설두의 뜻을) 보았다면, 남쪽을 치니 저절로 북쪽이 움직여서 염하자마자 바로 안목이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설두가 문제를 제기한(拈掇)이 인연을 사람들이 대부분 그릇되게 알고, 따로 지견(知見)과 의로(義路)를 일으켜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 설두의 뜻이 원래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말해보라! 설두의 뜻(雪竇意)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다 이러쿵저러쿵하는 놈들은 모두 다) 한 번 밟아버려야 한다. 그러나 또 잘못 알지 말라.

✻장생교연의 활발발(活潑潑)에 관해 몇 가지를 소개한다(전등록 제 18권, 복주 장생산 교연 선사 편).

①설봉이 (장생에게) 물었다.

"경을 수지한 이는 능히 여래를 짊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여래를 짊어지는 것인가?"

(그러자) 장생이 이내 설봉을 방망이로 치고는, 선상禪床 위에 놓았다.

②설봉이 (장생에게) 물었다.

"빛과 경계가 모두 없어지면, 또 이것은 어떤 것(무슨 물건)인가?"

스님이 말했다.

"교연(皎然, 저)의 허물을 용서해주시면 감히 상량해보겠습니다."

설봉이 말했다.

"그대의 허물을 용서해주면 어떻게 상량하겠는가?"

스님이 말했다.

"교연 또한 화상의 허물을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설봉이 깊이 인정하고, 뒤이어 수기를 했다. (후에) 장생산에 머물면서 교화를 베풀었다.

✻남쪽을 치니 (저절로) 북쪽이 움직인다(打著南邊動北邊)는 표현은 진대(晉代)의 승려 배도화상(杯渡和尙, 322~400)의 일발가(一鉢歌)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략) 打著南邊動北邊 若覓法鷄足山中問迦葉 大士持衣在此中 本來不用求專甲 (중략)

남쪽을 치니 (저절로) 북쪽이 움직이는데 / 만약 법을 찾는다면 / 계족산 중의 가섭에게 물어라 / 대사는 옷을 가지고 이 속에 있지만 / 본래 한 벌의 옷도 구할 필요가 없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⑧ 믿음 편 8

정토신앙은 방편적 타력신앙

나는 수영을 못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수영장을 가본 적도 없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은 내게 자주 말씀하셨다. 내 사주에 물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런 때문인지 성인이 되어 어디를 놀러갈 때도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아버님의 당부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누군가 구해주지 않는 한 물에서 나올 수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앙도 수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생로병사라는 고통의 바다(苦海)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존재다. 종교적 신앙은 바로 온갖 괴로움이 가득한 이곳(此岸)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저곳(彼岸)으로 건너가는 여정이다. 자력신앙은 우리 모두 수영을 해서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의 은총에 의해서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 타력신앙이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는 전형적인 유형의 자력신앙이다. 모두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수영을 못 하더라도 충분히 노력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면 고통의 바다에서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간은 스스로 수행을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붓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적어도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자력신앙과는 전혀 다른 유형을 보이기도 한다. 바로 아미타불(阿彌陀佛)이라는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에 의지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즉 정토(淨土)에 낳기를 바라는 신앙이 등장한 것이다. 정토신앙은 전형적인 유형의 타력신앙이다. 불교의 교조인 붓다의 교설과는 다른 입장이다.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라는 서로 이질적인 두 입장이 불교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붓다의 가르침과 타력신앙은 어울리지도 않는다. 깨달음을 본질로 하는 불교의 정체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대승불교에서는 붓다의 가르침과는 다른 정토신앙을 제시한 것일까? 여기에는 죄가 너무 깊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마저 모두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서원(誓願)이 담겨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모두 건지겠다는 것과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괴로움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존재다. 붓다는 누구나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영을 못해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충분히 수영해서 나올 수 있으니 힘을 내라고 할 것인가?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은 큰 용기와 격려가 되지만,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바다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구조대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나처럼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진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특수 구조대를 파견하였다. 그들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손을 내미는 존재를 방편으로 설정하였다. 그 구조대장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든든하면서도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정토신앙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정토에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타력신앙을 방편적으로 설정했다. 다양한 방편을 포용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얼마 전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위아래 모두를 발치하는 큰 공사를 했다. 발치를 할 때 물론 마취를 했지만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허가 제 2017-10호 법인등록 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입종구비서류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敎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송천동) 천룡사 | 전화 054)823-6777 | HP 010-4053-2722